

KB금융, 업계 첫 '순익 5조클럽'... 주주환원에 1.8조 쏟아

작년 당기순이익 5조782억 달성
증권·손보·카드 등 비은행이 견인
1조7600억 규모 주주환원 발표
돌봄·상생 등 사회적 가치 밸류업

KB금융그룹이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연간 순이익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섰다.

KB금융은 5일 인터넷·모바일 생중계를 통해 2024년 당기순이익이 5조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고 밝혔다.

◆ 사상 첫 '5조 클럽'... 비은행 이익 ↑

지난해 대규모 추가연계증권(ELS) 고객보상과 시장금리 하락 등 경영환경은 어려웠지만 증권과 카드, 보험 등 비은행 부문의 이익이 확대됐다.

비은행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KB증권 50.3%, KB손해보험 17.7%, KB국민카드 14.7%, KB라이프(개별기준) 15.1% 증가했다.

KB금융 관계자는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지속적인 이익기여도 확대가 그룹의 견조한 수익 창출력 개선을 이끌어



국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이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5일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국민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4대 금융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16조9194억원으로 지난 2023년 대비 13.03% 증가한 규모로 KB금융은 약 11% 증가한 5조660억원, 신한지주는 8% 증가한 4조8372억원, 하나금융지주 11% 증가한 3조8614억원, 우리금융지주 20% 증가한 3조1548억원으로 추산된다. /뉴시스

갔다"며 "앞으로도 저성장·금리하락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각 사업 부문별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위험가중 자산이익률(RoRWA) 중심의 질적 성장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4분기 당기순이익은 682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7.7% 감소했다. 희망퇴직비용 등 거액의 일회성 비용 인식과 환율 상승과 주가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및 파생·외환 관련 손익의 감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보험실적

축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순이자이익은 12조8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순이자마진 하락에도 금리인하 기대감에 대출 수요가 커졌고, 카드와 보험사 등 비은행 계열사들의 이자이익 기여도도 꾸준히 확대됐다.

순수수료이익은 3조8496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다. ELS 판매증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 등으로 은행과 부동산신탁의 신탁보수가 줄었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손익이 큰 폭 증가하고, IB부문의 증권업수입수수료가 확대됐다.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72%로 전년 대비 0.59%포인트(p) 개선됐으며, 영업이익경비율(CIR)도 40.7%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을 갱신했다.

작년 말 기준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51%, 16.41%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 적정성 유지했다.

◆ 올해 주주환원 1조7600억 '밸류업' KB금융은 이날 자사주 매입·소각

5200억원을 포함한 1조76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발표했다. 앞서 내놓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2024년 말 CET1 비율 13.51% 중 13%를 초과하는 자본이다.

하반기에는 2025년 하반기 CET1 비율 13.50% 초과 자본도 추가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KB금융은 사회적 가치도 밸류업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 관계자는 "KB가 포용금융, 성장지원 금융, 사회 기여 금융 등 사회 분야에서 창출한 가치는 연간 약 2조3800억원 수준"이라며 "지난해 사회공헌 전략체계 개편을 완료한 만큼 올해에는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확대 노력을 지속하면서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소통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줬다. KB금융은 실적발표회에서 개인주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사전 접수된 개인주주 질문에 경영진이 직접 답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엘리트' 몸값 뚝 오른다... 송파구 아파트값 들쭉

'토허제' 해제 가능성에 집값 자극
업계, 이르면 내달에도 발표 예상
엘스 '국평' 한달새 1~1.5억 경총

"선호도가 낮은 아파트단지도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이다. 이사를 가려는 구매물만 있다."

최근 '잠실 엘스'를 포함한 잠실 3대 대장주로 불리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움)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가능성이 송파구 아파트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달 14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잠실을 비롯한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2020년 이후 장기간 토허제 규제 대상이었으며 규제 완화 시 투자 및 실거주 수요가 동시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잠실인근 공인중개업소 A씨는 "토허제 해제가 5월로 예정돼 있으나 시장에서는 빠르면 다음 달에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A씨는 "문의 전화도 많아지고 매물이 바로 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라인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엘스 '국평' 전용 84㎡는 최근 28억8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달 초에는 27억원 내외에서 거래되던 매물이 1억~1억5000만원 정도 오른 상태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로얄동이 아닌 매물은 26억원 초반에도 거래가 가능하고 귀땀했다. 토허제 해제 전에 거래한 사람들도 소급적용이 될지 미지수지만 발표 후에는 조건이 좋지 않은 물건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강남 접근성이 높은 송파구는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며 타 지역 대비 가격 변동성이 크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동향(1월 셋째 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이 4주 연속 보험세를 보인 가운데 송파구는 가장 큰 매매가 상승폭(0.04%→0.09%)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 가능성과 함께 재건축 기대감 등이 매수세를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신천동 '잠미1차' 전용면적 99㎡는 지난달 26억원에 거래돼 지난해 10월(24억9000만원) 대비 1억1000만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얼마 남지 않은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매물 잠금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늘었다"며 "토허제 해제 가능성에 이어 재건축 기대감까지 확산돼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현 기자 jim13@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월지급금 오른다

3월 신청자부터 월지급금 0.42% ↑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오는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명예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기대여명 증가 및 이자율 하락 등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신규 신청자의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소폭 증가(평균 0.42%)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 및 오는 28일까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고객은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관계없이 기존에 산정된 월지급금을 계속 지급받게 된다.

김경환 HF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주택연금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가입자변 확대 노력 등을 통해 고령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허창언 "보험 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보험개발원 원장)

초연결 시대 보험산업 플랫폼 도약
올해 '실손24' 2단계 시스템 속도

"보험 데이터를 자체 분석 목적에 맞게 쉽게 추출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보험데이터마트를 구축해 데이터 융합 환경을 조성하겠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사진)은 5일 '초연결 시대 보험산업의 플랫폼으로'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적 보험서비스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실손24'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초연결 시대 보험산업 플랫폼으로 거듭 나겠다는 계획이다.

허창언 원장은 "지난해는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등 시장환경 변화 속에서 보험개발원이 실손24,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초연결 시대의 초석을 마련한 시기"라며 "2025년은 보험개발원이 초연결 시대의 보험산업 '플랫폼'으로 거듭나 보험산업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주요 사업 추진 과제로 ▲플랫폼 서비스에 기반한 보험산업 미래 먹거리 발굴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술 융합을 통한 신상품 개발 지원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신시장 수요 창출 ▲신(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플랫폼 서비스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구축 및 운영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1단계 시스템 오픈에 이어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2단계 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추진한다.

지난 2월 4일까지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487곳으로 삼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형 병원들은 대부분 포함됐다. 오는 3월 말에는 보건소 3500여곳이 추가로 연계돼 총 4000여곳을 넘어서는 의료기관이 시스템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GS건설, 작년 신규수주 20조 육박 96% ↑

영업이익 2862억... 흑자 전환 성공
플랜트 사업본부 매출 41.7% 성장

GS건설이 지난해 신규수주 규모가 20조원 가까이 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5일 GS건설에 따르면 작년 영업이익이 2862억원으로 전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데 성공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12조8638억원이다.

미래의 매출 성장세를 가능케 하는 신규

수주는 전년 대비 95.5% 증가한 19조9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16조7400억원을 넘어서며 창사 이래 최대치를 다시 썼다.

사업본부별 매출을 살펴보면 건축주택사업본부와 지난해 9조5109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했고, 인프라사업 본부는 지난해 1조1535억원으로 4.5% 증가했다. 플랜트사업본부 매출은 4257억원으로 41.7% 성장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